열매

2015년 봄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감나무집 10주년 연혁

2004. 1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허가
2005. 01 카프 마포공동체 개소
2005. 10 가정폭력사범 보호조치 프로그램 수탁(서울 가정법원 지정)
2006. 11 시설 명칭 및 시설장 변경
카프마포공동체(조현섭 대표) -> 카프남성거주시설(차진경 대표)
2008. 03 적십자간호대학 인문학과정 연계, 임상실습협약
2009. 05 감나무집 재건축 TFT구성
2010. 03 美 DAYTOP과 MOU 체결
2011. 03 시설 명칭 및 시설장 변경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 카프남성거주시설 감나무집(임지순 대표)
-> 중독자 재활시설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김남문 대표)
2011. 12 감집 재건축 착공 및 임시 주소지 변경(연남동 -> 동교동)
2012. 03 시설장 변경 (차진경 대표 -> 이천근 대표)
2012. 08 감집 재건축 준공 및 이전(동교동 -> 연남동)
2013. 04 마포구고용지원센터와 MOU 체결
2014. 05 보건복지부 평가 실시(A+)
2014. 07 사업자등록 고유번호 등록
2015. 01 감나무집 10주년 기념식

2015년 ¼분기 활동모습

01/18 가족교육

01/20 감집10주년 행사

02/05 직원 세미나

02/06 감맨생일자 파티

02/18 구정 차례지내기

02/27 남한산성 걷기

2015년 ¼분기 활동모습

02/26 명상 프로그램

03/10 삼겹살 파티

03/13 텃밭 가꾸기

03/20 탐색 집단

03/24 회복자 세미나

03/30 강화도 캠프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 회복자 민OO 선생님 -

2012년 가을 반바지에 반팔 T셔츠를 입고 검은 비닐 봉지 하나 달랑 들고 감집 문을 들어 섰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을 보내고 이제 3년의 시간을 돌아 본다. 죄충우돌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 보낸 시간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보다 아쉽고 안타까운 기억들이 앞선다.

감집 첫날 나는 두가지 약속을 했다. '바보처럼 따라하고 , 껌딱지처럼 붙어 있자' .

언제나 자기중심적 아집과 합리화로 우선하는 내가 바보처럼 따라하는 것이 가능할까? 쉽게 단념하고 회피하던 내가 인내와 노력으로 3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이 두가지에 나의 단주에 대한 성패를 걸어 보았다.

말소된 주민등록증이 복구되고 수급자로 선정된 것이 나의 첫번째 변모였다. 하루하루 달리듯 지나 온 첫 해는 긴 거리를 달려 온 듯 헐떡 거렸다. 부서장이 된 후 더욱 바빠진 감집 근무, '장애인활동보조' 와 '건강음주 희망상담활동' 을 함께하며 지내온 취업자 시간은 나를 뒤돌아 볼 겨를조차 없이 몰아 세웠다.

첫 월급과 저축통장을 바라 보면서 흘리던 눈물…
나를 힘들게 했던 동료, 깐깐한 직원의 눈길, 수차례 경험학습은 나를 단련시켰다. 고비를 맞을 때마다 처음 했던 두가지 약속을 잊지말자고 입술을 깨물었다. 안락은 재발로 가는 단초임을 일깨웠다.

이제 9월이면 나도 자립의 길을 나서야한다. 돌아 갈 집과 가족이 있어 기쁘기보다 당당히 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쁜 것이다. 지난 3년간의 고군분투가 앞으로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내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실로 많은 이들에게 큰 빚을 졌다. 이들 모두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내일도 단주의 길을 갈 것이다. 바보처럼…

감나무집 벽화

(뿌리깊은 나무)

행복한 미래

- 직원 신경자 선생님 -

넓은 마당 구석에 자리를 지켰던 예전의 감나무가 생각나네요.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가족선생님들과 수확을 했었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족들과 다른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회복선생님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공간 감나무집!
열심히 단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루하루 살다보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봄이되어 새싹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길~~

단주와 회복을 위하여
건강과 회복을 빕니다.
감나무집 가족 모두 새해 건강하세요.
늘 평온함이 ...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과 딸.. 그리고 영원한 벗...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평온함을 주소서..
취업하고, 열심히 살면 단주도 함께 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래요.
희망나무
감나무집

어른이 된다는 것은

-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릴 때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크게 성공하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화려한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 같은 성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그 시절에는 비록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앞으로 자신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실제 모습은 꿈꾸던 것과는 차이가 많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 감나무집에 도움을 주신 봉사자 선생님 ♡

명상: 동석스님

이미용서비스: 김순란, 채명애, 창근자선생님

“마중물” 회원을 모십니다.

펌프에서 물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로 인해 콸콸 쏟아지는 물처럼 알코올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족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중물 회원이 되는 방법♡

정 기 후 원 :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
비정기 후원 : 비정기적으로 금액을 후원
물 품 후 원 : 감나무집에서 필요한 식품, 관람권, 물품 등의 후원
자 원 봉 사 : 프로그램 진행, 직업기술 강의 등
후 원 계 좌 : 우리은행 1005-580-071506(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담 당 자 : 문승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후원금 수입, 지출보고

후원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580-071506 (예금주 :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비지정후원금) (2015.03.31 기준)

내용	수입		내용	지출	비고
2014년 이월금	163,629				
후원금수입	1,250				
잡수입(이자수입)	40				
잔액				164,919	

(지정후원금)

내용	수입		내용	지출	
2014년 이월금	500,000			500,000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잔액				0	

후원 : 이마트 단체 지원(공덕점)